



미, 에틸렌 포장재 가격경쟁 치열
한국산 원료·인쇄기술 높아 고급품시장 진출해 불만

미국내 합성수지 포장재의 경우 원료는 대기
업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완제품인 포장재의 경
우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체에 의해 생산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소비자와 공급업체의 난무로 인해
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거래선 확보를 위한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에틸렌 포장재의 수입액은 연간 3억달
러 이상으로 나타났고 최근 들어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97년 상반기의 경우도 약 1억 5천만달러 상
당의 합성수지 포장재가 미국으로 수입돼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약 8%에 가까운 신장세를 보
이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캐나다가 대미 수입시장의 약
절반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
년 10% 내외의 비교적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95년 약 1천만달러에 가까운 수
출액으로 전체순위 제 5위까지 도약 했었으나,
그후 수출이 급격히 감소해 올 상반기 대미 수
출액이 약 250만달러 상당으로 지난해 같은 기
간에 비해 약 25%의 감소를 보이며 전체 순위



(표) 수입실적

국별	1994	1995	1996	97.1~6
캐나다	116,475	132,797	138,058	74,714
중국	31,068	48,023	55,811	27,075
멕시코	4,209	8,591	15,591	8,376
대만	16,238	19,467	16,705	7,858
태국	9,181	12,561	10,435	5,437
홍두라스	5,828	8,059	7,163	4,090
스리랑카	3,911	5,598	5,727	3,575
한국	5,324	9,781	7,216	2,429
홍콩	5,584	6,139	4,741	1,960
영국	1,915	4,564	5,375	1,892
총계	235,199	300,239	308,169	153,126

(자료: The World Atlas(1997.6))

주 : HS Code 3923.21 에틸렌 포장재의 통계임.

에서 제 8위로 밀려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밀봉장치가 없는 일회용 제품(보통 티셔츠백으로도 불림)이 전체 수입의 약 8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합성수지 포장재 수입중 최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합성수지 포장재의 수출은 수입규모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약 1억 5천만달러 상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국산 합성수지 포장재의 수출은 매년 20% 상당의 높은 성장율을 보이며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97년도 관세일정에 따르면 에틸렌 포장재에 대한 기본 관세율은 그 종류에 따라 3.0%와 5.3%의 두 가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단위의 대규모 주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대형 유통채인의 주문이나 자사의 로고 없이 일반 소매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의 주문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문의 경우는 제품의 질보다는 가격이 구매에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현지 바이어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고급 제과점 체인, 유명브랜드 기성복 체인, 호텔 등 주문자가 원하는 독특한 디자인이나 로고를 원하는 경우는 제품의 견고성 및 인쇄기술의 정도에 따른 인쇄된 문자, 무늬 등의 선명도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한 바이어들에 따르면 한국산의 인쇄기술은 최고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중국 및 동남 아시아 산이나 미국내 현지에서 소규모 업체들에서 생산되는 포장재의 인쇄에는 소위 Rubber Mold 라는 값싼 방식이 채택되고 있는 반면, 한국산의 경우 고급방식인 "Copper Mold"를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인쇄기술에서 앞선 한국산 고급품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업체들이 효과적인 미국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현지 실정에 밝고 시간적, 경제적부담이 적은 현지 에이전트의 활용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공급업체들은 한 컨테이너를 거래의 최소한 단위로 요구하는 것이 상례이나, 바이어들은 첫 거래는 한 컨테이너 이하의 주문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첫 거래시 경쟁력있는 가격조건을 제시하고 딜리버리 시기의 준수만 이뤄진다면 거래를 성사시키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품의 질과 인도시기 등을 점검한 후 점차 거래를 확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적은 양의 주문이라도 성실하게 대응해 지속적인 거래를 위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바이어들은 지적하고



있다.

바이어들은 합성수지 원료가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독점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제품이 가격경쟁력 또한 갖춘 것으로 믿고 있어 한국의 경쟁력 있는 생산업체와의 접촉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플라스틱 판지 제조설비 찾아
페루업체 25만~20만불 규모

페루 Tecknipack사가 열성형라미네이팅 사출 생산라인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정 한국업체를 찾고 있다.

이 기계류는 두께가 0.2~2.0 mm인 고장력 폴리스틸렌(HIPS) 및 폴리프로필렌(PP) 판지생산시에 HIPS 및 PP를 원자재로 사용한다.

페루업체가 구매코자 하는 HIPS, PP 판지 생산라인에 포함되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

- 1일 3,000 kg 생산용량을 갖춘 사출라미네이팅기
- 자동 또는 반자동 열성형기
- 금형
- 절단기
- 금형 및 열성형기에 사용되는 냉각시스템

현재 페루업체는 미국에서 Ampak 브랜드와 스페인에서 Hamer 브랜드의 기계류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 회사는 한국산 기계류가 가격면에서 대만산과 유럽산 중간수준이므로 이 프로젝트 추진에 총 25만~30만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 PP 벌크 백 40만개 찾아
식품, 시멘트, 사료, 비료 등 하역 용도

호주 빅토리아주 소재 Bulk Handling Australia사가 식품, 시멘트, 사료, 비료 등의 하역에 사용되는 PP Bulk Bag 40만개의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 세부사양

- Woven Polypropylene, HDPE Laminated Woven Material
- Valve Fill Block Bottom
- Open Mouth and Sewn End

헝가리, 플라스틱 원료산업 신장세
2000년까지 연수율 15~20% 확대전망

헝가리는 기존에 화학산업 개발국 역할을 지속해왔던 관계로 제조업 중에서도 플라스틱산업의 생산경쟁력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플라스틱 원료의 생산능력은 여전히 높으나 생산물량은 정체상태이다.

헝가리 플라스틱 원료의 90% 이상이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염화비닐(PVC) 및 폴리스틸렌(PS)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PVC 및 PS의 생산량이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PE 생산량은 정체상태이며, PP생산량은 생산가동률이 축소돼 생산량이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헝가리의 플라스틱 원료 제품의 품질수준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헝가리의 PVC 생산회사인 Borsodchemdms는 일본Shin-



Etsu사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시스템이 발달돼 제품수준이 EU제품의 품질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향후 생산추세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현재도 완전히 가동되고는 있으나 생산가동을 확대를 위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차세대 합성수지 기술 개발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헝가리의 플라스틱 원료 수요량은 35만톤 정도로서 PE가 15만t, PP가 6만t, PVC가 8만t, PS가 4만t 정도이다. 헝가리 플라스틱 산업 조사연구기관인 MUKI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까지 헝가리의 플라스틱 원료수요량은 연간 15~20%씩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도별 수요량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수요증가율은 94년 16.8%, 95년 6.1%, 96년 15.0%를 나타냈다.

플라스틱 원료중 중저가품들은 헝가리 내수생산품이 충당을 하지만, 헝가리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은 제품의 사양과 품질에 맞는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헝가리 내수생산품이 전체 수요의 60%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고급 수입품이 충당하고 있다.

헝가리에서 수입되는 플라스틱 원료는 전통적인 공급국이었던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의 비중이 높으며, 최근 들어 새롭게 개발되는 합성수지의 영향으로 공급국들이 다양화되고 있다.

수입금액도 94년 7,500만달러, 95년 1억100만달러, 96년 1억1천만달러를 기록, 95년 및 96년도 전년대비 수입증가율은 35%, 8.3%나 됐다.

헝가리는 플라스틱 산업의 강국으로서 쿼터 및 품질규격인증 등 아무런 규제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관세도 모든 국가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헝가리 내수생산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 수입품들은 고품질 제품에 특화가 된 편이다.

한국산의 수입비중은 1% 미만으로 극히 낮다. 이유는 한국산은 품질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플라스틱 원료들의 부피가 커 원거리 운송비부담이 커지는 이유로 현지 가격이 높아 수출실적이 낮다.

한국은 기술집적 플라스틱 원료 제품에 특화를 하고, 지역적으로는 동구권국가들 중에서 1개국을 선정해 이곳에 1차로 물량을 집적한 후 이들을 여타 국가시장에 재분배하는 형식을 취할 경우 진출가능성은 있다.

[표] 수입실적

국별	1994	1995	1996
독일	21,204	22,727	24,292
러시아	11,328	13,516	13,709
벨기에	5,203	11,573	15,387
이탈리아	5,353	11,070	9,922
화란	4,683	6,657	7,297
프랑스	5,670	5,462	6,299
스르바키아	4,683	5,740	6,487
오스트리아	6,027	5,715	4,316
미국	539	2,100	3,114
영국	1,187	2,100	1,882
한국	436	654	455
총계	75,095	101,464	109,882

[자료 : 헝가리 상공부 무역통계]
주 : Polyethylen(HS Code 3901.10, 3901.20), Polypropylene(HS Code 3902.10, 3902.30), PVC(HS Code 3904.10, 3904.21, 3904.22), Polystyrene(HS Code 3903.11, 3903.19)의 합계치임.



특히 헝가리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류 PET, Linear PE, 순수PVC, Foamable이 안되는 PS 등을 특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신규기술이 적용된 합성수지의 시장진출이 가장 요망되는 사항이다.

새롭게 개발된 제품류를 헝가리를 비롯한 동구권시장을 기점으로 EU 시장에도 우회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머지 품목들은 헝가리 제조업체들과 합작투자를 통해 진출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다. 헝가리 제조업체들은 현재 생산설비를 최대한 가동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기술 투자를 못하고 있다.

헝가리측에서는 설비지원을, 한국측에서는 기술과 자본을 지원해 EU 및 동구권시장을 공동 진출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음료수 캔 비닐용기 수입희망
 업체 첫 주문 1컨테이너 규모

미국 Custom Printing사가 음료수 캔을 담을 수 있는 비닐용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한국업체를 물색하고 있다.

용기 재질은 Vylon(vinyl coated nylon)으로 돼야 하며 크기는 가로 9", 세로 6.5", 높이 6"로서 6개의 캔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뚜껑에는 지퍼가 달려 있어야 하며 어깨끈이 달려 있어 떼고 다닐 수 있어야 한다.

이 회사는 첫번째 오더가 1컨테이너분이며, 제품이 만족스러우면 향후 지속적으로 수입량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먼저 샘플을 제작해 송부해 주길 희망하고 있다.

폴리스틸렌제품 수입 PS가 주종
 ISO 9000 규격인증 등 품질보증 선행돼야

폴리스틸렌의 기초제품인 스티렌 모노머는 전 세계적으로 연 1천7백만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지역에서 7백만톤,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5백만톤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독일업체인 BASF가 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PS 제품은 요구르트컵이나 컴퓨터 외장재 등으로 사용되며, 1천1백만톤의 폴리스틸렌 모노머를 사용하는 주품목이다. 그러나 냉장고 내부나 절연재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 EPS의 스티렌 모노머 수요규모는 3백만톤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ABS, EPS제품용 스티렌 모노머 수요 규모도 이와 동일한 4백만톤 규모를 보이고 있다.

전세계 생산규모로는 아시아산이 상대적으로 생산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벨룩스, 화란, 영국등이 주공급국이며, 이외 체코, 헝가리 등 동구국의 진출실적(약 7%)도 적은 규모나마 주목해 볼만하다. 그러나 아시아산은 2% 미만의 극히 미미한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4종의 PS제품중 합성품인 ABS나 EPS의 수입수요는 극히 적어 별도의 수입실적이 집계돼 있지 않을 정도로서 PS와 EPS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 PS와 EPS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 PS수입규모가 EPS수입규모보다 2배 이상이다.

한국은 96년 7월 1일부터 10.7%의 일반 수입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으나 현지 제조업자에게 적용되는 ISO 9000 규격 합당제품임을 입증하는 증명이 제시돼야 한다.



96년도 중에는 공급과잉현상으로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는 등 해외공급업체간의 가격경합이 치열한 상태에서 국내생산분 또는 수입분을 가리지 않고 유명브랜드인 BASF, Huels, DOW, ELF, Atochem제품을 선호했는데, 이는 가격 차이가 거의 없고 소비자로부터의 불평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고객유지 확보에 주안을 두어 왔다.

[표] 수입실적 (단위: US \$천)

품목별	1994	1995	1996
EPS	130,356	174,964	145,315
PS	281,819	310,999	253,022

국별	1994	1995	1996
프랑스	123,749	167,049	114,535
벨룩스	98,045	118,149	82,661
영국	36,413	50,554	33,383
화란	37,260	208,483	65,013
체코	25,719	27,057	18,897
오스트리아	18,499	16,971	13,406
핀란드	5,541	5,449	8,946
한국	2,226	1,799	5,061
싱가포르	1,228	554	379
대만	—	156	551
총계	412,175	485,963	398,337

또한 전반적인 가격하락으로 균일품질 제품 공급에 급급한 나머지 양질의 아시아산 공급원 개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우리와 경쟁이 되는 아시아산 제품의 공급실적은 싱가포르, 대만 외에 일본, 말레이시아 등이 있으나 진출실적이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

PS제품은 원료제품으로 Crystal clear제품과 High impact제품으로 나뉘는데, Crystal clear 완전투명한 상태로서 노란 색조가 전혀 보여져

서는 안되며 불순물이 전혀 없는 Melting index 100% 제품으로 완제품 생산시 품질균일 등 품질보증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진출이 가능하다.

가격 경쟁이 매우 민감한 제품이므로 실수요자 및 현지 공급상들은 더 이상의 품질검사가 필요없는 유명브랜드제품 구입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유리한 가격체시가 선행돼야 하며, 아울러 독일 공인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증명서가 제시돼 더 이상의 품질검사가 불필요한 양질 제품임을 최초단계부터 인지시켜야 한다.

독일 뒤셀도르프지역에서 3년 주기로 개최되는 “K Internationale Messekunststoff & Kautschuk”는 폴리스틸렌제품의 국제시장으로서 한국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참가를 통한 마케팅이 질실히 요청되고 있다(98년 10월중 개최 예정).

고급 아트지 등 대량 구매추진
 뉴질랜드산 한국 공급업체 물색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Impex Press사가 고급 아트지 및 인쇄용지를 대량 수입키 위해 KOTRA 오클랜드 무역관에 적정 공급업체를 물색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 회사가 이번에 수입코자 하는 품목은 Coated art paper and boards, All types of writing papers이다.

이 회사는 한국업체가 샘플과 가격표를 송부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가격 및 품질조건이 맞을 경우 대량 주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업체의 신속한 상담이 요망된다.



폴리에틸렌 발포시트 찾아

뉴질랜드사 업체 물색후 韓商상담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A & E Karsten Assoc사가 한국산 폴리에틸렌 발포시트(Expanded polyethylene foam sheet)를 긴급 수입키 위해 KOTRA 오클랜드 무역관에 적정 공급업체를 물색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 회사는 1985년에 설립된 뉴질랜드내 최대 폴리에틸렌 발포시트 수입, 유통업체의 하나로써 종래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등에서 수입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거래해 오던 말레이시아 거래선 공장 화재로 긴급히 물량확보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 회사는 적정업체가 물색될 경우 2주 이내에 한국을 방문, 구체적인 상담과 계약을 치를 계획이므로 관련업체의 신속한 상담이 요망된다.

○제품사양

- 0.5mm × 1,200 mm × 600 m Rolls
- 1mm × 1,200 mm × 300 m Rolls
- 2mm × 1,200 mm × 150 m Rolls
- 5mm × 1,500 mm × 50 m Rolls
- 5mm × 1,500 mm × 50 m - Aluminum Backed
- 10mm × 1,500 mm × 50 m Rolls

스리랑카 스티커페이퍼 시장 활기

수요전망 수입의존 최종 소비자가 직접 수입

스리랑카는 산업수준이 낙후돼 있고 경제발전 초기단계인 관계로 아직은 접착제(Sticker

Paper)는 전혀 생산되지 않고 수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투자가 활기를 띠면서 스티커페이퍼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의 투자자들의 산업활동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입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스티커 페이퍼'로 통칭되는 이 품목은 크게 Paper 와 PVC Based로 대별되고 있으며, 스리랑카에서의 수입수요는 대부분 최종 사용자가 직접 수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수입 후 소매판매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 두가지 종류 중 PVC 페이퍼는 방수가 되므로 주로 자동차 오토바이 승용차의 몸체에 이용되고 있고 표지판 등에도 많이 사용되며 경제발전과 함께 수요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스리랑카의 수입 특성중의 하나는 시장규모가 작은데다 재고를 원치 않아 대량 수입이 드물고 판매량이 많은 종류만을 선별수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수입실적은 전반적으로는 수입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4년에 수입시장 점유율이 10%를 크게 웃돌았으나 96년에는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계치로만 볼 경우 전반적인 수입증가 속에 95년에는 전년대비 3%, 그리고 96년에는 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한국, 일본 등 극동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고 동남아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했다.



아울러 수치상으로는 미미하지만 94, 95년에 걸쳐 독일로부터 Intercoat브랜드와 유사 브랜드가 진출해 고급품 시장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으며 핀란드 등의 진출도 시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표] 수입실적

국별	1994	1995	1996
대만	23,382	856	13,279
홍콩	34,468	46,381	16,235
인도네시아	120,897	58,464	166,106
일본	47,603	32,911	10,137
한국	111,604	39,748	58,441
말레이시아	257,131	426,432	474,775
싱가포르	15,907	33,503	10,271
핀란드	-	-	37,142
멕시코	-	-	9,467
기타	23,508	15,200	8,047
합계	634,500	653,504	803,900

하지만 KOTRA콜롬보 무역관에서 주요 수입상들을 접촉해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한국산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있으며 서서히 공급선을 한국으로 옮기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리의 수출노력여하에 따라서 시장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접착테이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실제 적용과정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 실제 부과되는 총세율은 56.75%이다. 아울러 수입자유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일정의 관세만을 납부하면 임의의 수입이 가능하며 별다른 제한없이 공급상들도 신용도에 따라 수입대금의 일정부분에 대한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리랑카 수입상들은 공급상들을 좀처럼 바꾸려 들지 않는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상 자체가 실제 최종 소비자라는 특징

을 보이고 있어 소매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

EU, 제조물 책임제 적용 확대 기초농산물도 99년부터 시장 제안

EU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제조물책임제도(PL) 적용대상을 기초농산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96년부터 EU내에서 관심을 끌었던 BSE파동이 그 직접적인 계기로 집행위는 지난 2일 제조물 책임제도에 대한 현행규정인 지침 85/374/EEC의 범위를 기초농산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EU의 제조물책임제도는 지난 74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85년 6월에서야 제정된 것으로 현재로서는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원국이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입법화하고 있다.

이 지침은 현재로서는 공산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견가능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하자상품의 경우 생산자가 재정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74년 이 지침을 제안했을 당시 집행위는 기초농산물도 이 지침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결국 공산품만으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기초농산물을 이 PL제도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회원국 재량권에 맡기는 선으로 타협을 했었다.

현재 그리스, 룩셈부르크,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등이 기초농산물에 대해서도 PL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행위는 이번 제안에서 육류, 곡물, 과일, 채



소와 같은 기초농산물도 지침대상에 포함시킬 것과 EU내에서 생산된 것 이외에도 대상국가 자체를 EEA국가, EU(15개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로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소급효과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예정대로라면 회원국의 국내법 이행시한인 99년 1월부터 시장에 출하된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직접적으로는 BSE 파동에서 비롯된 이 제안은 공동결정절차에 의해 EU이사회와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일부 회원국에서 기초농산물을 PL제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다 BSE 파동이후 소비자 보건에 대한 집행위 및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캐나다, 종이쇼핑백 수요 늘어
향후 지속전망 상품화 패션화, 고급제품 인기

캐나다 국내 종이쇼핑백 제조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 규모의 업체들로 종이쇼핑백외에도 다른 종류의 백들을 함께 제조하고 있으며, 종이쇼핑백의 경우 대부분 주문에 의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통계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94년 현재 국내종이 쇼핑백 생산은 9천7백88만달러로 집계됐다. 국내 생산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은 2천9백94만6천달러, 수출은 2천1백70만달러로 국내수요가 1억6백12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96년 말경부터 소비자 지출이 점차 늘어나고 백화점과

소매점의 매출도 차차 증가를 보이고 있어 종이쇼핑백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캐나다의 연간 종이쇼핑백 수입은 94년 2천9백94만6천달러, 95년 4천55만1천달러, 96년 4천3백84만5천달러로 매년 증가를 보여왔으며, 96년의 경우 전년대비 8.1%의 증가율을 보였다.

주요 종이쇼핑백 수입국들로는 미국, 중국, 한국을 들 수 있는데, 캐나다는 96년 현재 미국으로부터 3천2백92만달러 상당을 수입해 총 수입의 75.1%를 대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96년 8백23만달러로 전년대비 4.7% 증가했으며, 시장점유율도 17~19%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 종이쇼핑백 수입에 아무런 규제가 없으며 MFN관세는 6.4%이며, 미국, 멕시코, 개도국에 대해서는 0%가 적용된다.

캐나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낮은 품질의 종이쇼핑백은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되며, 국내 생산업체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것들은 그보다 양질로 조사됐다.

종이쇼핑백의 경우 대부분 국내 유통업체 특히 소매업체로부터 주문을 얻어 원하는 디자인이 담긴 종이쇼핑백을 주문생산하는 것이 대부분

(표) 수입실적

(단위 : US \$)

국 별	1994	1995	1996	97.1~6
미국	21,478	28,940	32,921	16,770
중국	5,098	7,864	8,230	3,248
한국	1,391	1,415	990	545
홍콩	341	261	151	140
대만	79	92	42	180
멕시코	23	81	155	123
기타	1,536	1,898	1,356	819
총 계	29,946	40,551	43,845	21,825



분이다. 이로 인해 소매업체가 직접 해외 생산업체를 찾아 주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대부분 국내와 미국으로 주문하고 있다.

최근들어 일부 대형 백화점에서도 비닐쇼핑백에서 다시 종이쇼핑백을 사용하기 시작해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어 앞으로 종이쇼핑백 사용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급 의상실이나 의류 판매점의 경우 아주 고급스런 종이쇼핑백을 사용하며, 일부 상점의 경우 종이쇼핑백을 판매하기까지 해 종이백 자체를 상품화시키고 있다. 여성들이나 고급브랜드를 찾는 고객들에게는 큰 인기를 모으고 있어 고급상점의 이름이 찍힌 고급쇼핑백은 하나의 패션이기도 하다.

환경오염과 자연보호에 민감한 이곳 현지인들은 재활용 가능한 비닐백과 함께 종이쇼핑백의 사용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쇼핑백보다 곁이 코팅되고 튼튼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쇼핑백을 선호한다.

양질의 종이쇼핑백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먼저 그 품질을 인정받고 납기일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대량 주문을 기대하기보다는 소량이라도 우수한 제품을 납기일에 맞춰 꾸준히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제품이 그렇듯이 종이쇼핑백의 경우도 제품이 다양해야 한다. 현지 수입상들은 박판을 썬 쇼핑백과 그렇지 않은 쇼핑백중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수입상들이 종이쇼핑백의 손잡이는 부드러운 코드로 된 끈을 선호하고 있다. 한국산 종이쇼핑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개최되는 유통업계 관련 전시회를 참가해 도·소매

업계 참가자들에게 직접 한국산을 선보이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국과 경쟁을 하려면 가격경쟁력이 아주 뛰어나야 하지만 양질의 종이쇼핑백시장을 겨냥한다면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은 우수한 소재 사용도 중요하지만 북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창안해 이를 홍보해야 한다.

폴리에틸렌 등 구매희망
터키산 1천~2천 규모

터키에서 2번째로 큰 화학제품 생산업체인 Naksan Plastik San사가 한국으로부터 1천~2천t 규모의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틸렌 등을 구매코자 한다.

이 회사는 연간 LDPPE(MI, 0.3~2) 4만t, LLDPE(MI-1) 1만t, HDPE(Filmgrade 0.05~0.3) 6천t, PP(Filmgrade) 2천t 등을 사용해 총 6만t의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는 연간 4만t의 폴리에틸렌 등을 수입할 계획인데 구입희망 제품별 용도는 다음과 같다.

- Polyethylene : Film, blowmolding, injection
- Polypropylene : Film, fiber, extrusion, injection, BCF
- Polyvinylchlorid : Pipe, profiles, cable, flooring, artificial leather
- Polystyrene : High impact, general purpose, expandable
- Inorganic and Organic Chemical Materials



美, 획기적 PE필름 개발
가볍고 견고, 플라스틱제품에 혁신 가져올듯

90년 초부터 세계의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기존의 PE필름을 대체할 만한 신제품 개발을 시작했다. 이같은 개발착수 10여년 만에 새로운 공정에 의한 PE필름이 속속 개발·시판됨으로써 업계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관련, 영국의 플라스틱제조업체인 Autobar Plastiques사는 지르코늄과 같은 분자식이 변하는 메탈촉매제를 바탕으로 단 한번의 촉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PE필름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된 PE필름은 분자구조식 변화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품의 균일성이 보장돼 견고하고 가벼운 점이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Seab사, Exxon Chemical사, Hoechs사 등 세계 유수의 업체들도 새로운 필름의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새롭게 개발된 이 필름이 기존 PE필름과 다른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PE필름보다 광택이 있고투명하며, 두께가 기존 70mm 필름보다 얇은 60mm두께이지만 강도에서는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새로운 공정으로 개발된 PE필름은 충격과 열에 강하고 신축성이 뛰어나며, 투명한 특성을 가지고 저온에서도 접착이 가능해 기존의 수지로 적용불가능한 분야까지도 적용가능케 돼 실로 적용범위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우선, 견고성이 뛰어나 장화나 신발과 같이 필

창의 견고성이 중시되는 제품에서 기존의 합성수지 밀창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PET 병, 유리병을 대체할 전망이다.

이같은 포장부분에 대한 용도외에도 장난감, 전자제품용 인젝션플라스틱 부품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5년내 자동차 범퍼제조업체들도 자동차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 공정을 이용한 PP로 된 범퍼의 출현도 기대되는데, 이 재질로 만든 범퍼는 시속 8km에 견딜 수 있는 기존 범퍼보다 더 강한 시속 10km에 견디는 힘을 가질 것으로 본다. Hoechs사의 Remi Magniere는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다양한 적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계자는 이 필름이 너무 미끄럽고 너무 광택이 나는 흠이 있다고 지적하고 장래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벨기에 Fina사의 M. Guy Debras는 과연 이같은 새로운 공정에 의한 제품이 기존의 합성수지 영역을 위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선형 PE필름이 등장했을때 필름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이전 수지시장을 새로운 선형 PE필름이 바로 대체하지는 못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새로운 수지가 곧바로 기존의 수지를 대체하는데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영국의 한 컨설팅업체가 조사한 이같은 새로운 공정에 의한 PE의 시장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전세계 연간 4천만t의 PE필름 사용량중에서 새로운 공정에 의한 PE의 사용비중은 2%선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지만, 향후 2000년에는 5%까지 확대 사용되는데 등 지속적인 사용증대 추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밝은 시장성을 전망하기도 했다. 일부의 회의적인 반응이 없지 않지만, 갈수록 가볍고 견고한 제품을 찾는 새로운 소비자성향을 감안할때, 이 제품의 견고성과 가볍다는 장점은 머지않아 전세계 소비자들의 흥미를 유도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프랑스 플라스틱제품 시장에서 이미 이같은 변화추세를 쉽게 읽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1회용 플라스틱 용기 플랜트 찾아
방글라데시업체 컵 100만개, 쇼핑백 500만개도

방글라데시의 유력재벌그룹인 Unique사가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1회용 플라스틱 컵 및 백등의 국내생산을 위해 플랜트 구매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그룹의 자회사인 Unique Plastic Industries사의 Mr. Bakhtier가 홍콩, 대만, 태국,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플라스틱사출기, Thermoforming, Labelling기계, Bottling설비, Sealing, Packing기계 등이 소요되는데 시간당 사이즈별로 1만5천개의 컵과 2천개의 쇼핑백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한편, 이 바이어는 공장완공까지 국내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사이즈별로 1회용컵 100만개, 1회용 쇼핑백 500만개를 구매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1회용컵 및 백 공급업체와의 상담도 희망하고 있다.

- 바이어명 : Mr. Bakhtier Rahman/
Director
- 1회용 투명 플라스틱 컵 및 쇼핑백 생산 기

- 계설비업체 (컵 :250/300ml, 백 : 300/500/1000/1500ml 규격용)
- PET Bottle 생산플랜트 일체
- Printing및 Labeling기계
- 플라스틱 투명 1회용 컵, 쇼핑백 등

멕시코, 사출성형기 대부분 수입
소비자, 첨단 기술로 작동되는 유명브랜드 선호

멕시코의 사출성형기계산업은 아직 초기단계로 3개의 생산업체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점유율은 7%에 불과하 정도로 매우 미약하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 유지보수를 위한 1개업체가 영업중에 있다.

국내업체들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기술개발 투자가 매우 어려우며 제품의 기능과 품질도 매우 단순하고 정밀도에 있어서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소비자들은 첨단기술로 작동되는 지명도가 있는 수입산 및 특정기간 동안 품질보증 및 A/S가 가능한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93~95년간 국내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96년에는 감소했다. 96년의 경우 수요가 5% 감소한 것은 93~95년간 지속적인 설비확장 결과로 현재 플라스틱제품 생산업체들은 전체설비의 약 70%만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성형사출기계에 대한 수요도 다소 감소했으나 향후 수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국산 품질저하로 수출은 미약하며 95년까지 주로 미국에 수출했으나 96년의 경우 멕시코



생산업체인 Arsa사에 의한 수출로 최대 수출국은 말레이시아로 변경됐다. 멕시코 제품의 낮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는 이유는 낮은 임금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우위로 인한 것이다.

수입은 95년까지 수출증가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생산 증가, 저렴한 원자재 비용 및 인건비 등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96년에는 유희설비로 인해 다소 감소했다.

대 멕시코 최대 수출은 미국이며(전체수입의 약 35~40%), 미국산의 약35%는 중미 및 카리브연안국가로 재수출되고 있다.

미국제품의 기능은 멕시코 소비자들의 취향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동일 기계로 여러종류의 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다용도면에서 뛰어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규모 유통상 및판매점을 통한 A/S체제가 확립돼 있어 Liberty의 경우 48시간내에 A/S를 통한 고장수리 및 부품조달이 가능한 점도 미국제품의 주요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수입품도 다양한 기능 및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넷세이가 현지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대만 및 한국제품은 가격경쟁력을 갖고있어 현 시장에서 점차 지명도를 높이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현지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 대만, 홍콩산에 대한 관심 및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수입시 관세율은 0%이며 세관수수료는 인보이스 가격의 0.08%이다. 기타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세 15%가 부과된다. 표준규격 등의 규격 인증이 필요없으며 94년 1월부터 NAFTA발효와 더불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구매집중 시기는 없으며 대체로 플라스틱산업 생산과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불조건은 계약시 30%, 딜리버리시 20%, 2년거치시용 50%, 조건이 국내거래 관행이며 국제간 거래시에는 신용장거래가 일반적이다. 압력이 40t 기준 제품의 경우 가격이 4만5천달러 수준일 경우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이 소비자인 경우 직수입하며 중소기업은 수입상 등을 통해 수입하고 있는데 멕시코내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점이 없기때문에 주로 카탈로그 등을 통해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수후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수입상들의 유통마진은 약 35% 수준이기때문에 최종 소비자를 발굴, 직접 판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특히 대만 제품의 경우 현지 시장점유율을 현저하게 높이고 있다. 품질만을 비교한다면 미국, 일본제품에 뒤지나 저렴한 가격 및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제품과 비슷한 특징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품질면에서는 미국, 일본산이 앞서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인데 가격면에서는 대만, 홍콩, 멕시코산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가격은 최근 3년간 평균 약8~10% 증가추세에 있으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폐소화 평가절화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산은 고가로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산에 대한 인식은 품질은 멕시코제품에 비해 비교적 전자식 작동으로 인해 중간수준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기계 및 부품의 내구성이 취약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품질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